| 현불 논단 |

# 차명상으로 본 통합명상 시대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현대적 명상방법론 체계화한**
**'MTV 통합명상' 용어 보편화**
**동사섭 · 차명상 등이 대표적**

**널리 알려진 전통 명상법도**
**수행 보조 도구에서 발전해**

**각종 이론 더해진 새 명상법**
**불교계는 받아들일 준비됐나**

전 세계 불교명상을 'MTV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M은 마하야나 즉 대승을 뜻하고, T는 테라바다 즉 상좌부를 말하며, V는 바즈라야나 즉 금강승을 의미한다. 20여 년 전부터 불교의 대표적인 모둠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MTV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불교의 대표적 명상 경향성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요즈음은 여기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붙여 'MTV 통합명상'이라고 쓰고 있다. 이 의미는 단순한 MTV가 아닌, 다양한 전통의 MTV명상을 통합적으로 수용한 바탕 위에 현대적인 명상방법론으로 체계화한 새로운 명상의 유형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동사섭과 차명상 그리고 표현명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명상을 예를 들어 보면, 차명상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참선'과 관련되어 있고 '선차' 다선, 명차 등의 전통적 용어로 설명돼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원에서 수행자들이 수시로 차를 음용하기 시작하면서 차와 선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특히 차는 좌선 수행을 할 때 졸음을 물리치는데 효과가 있어 더욱 선호되었다. 그 이후 차회를 열어 차를 나누는 행위가 선원청규에 내규로 등장하고 하나의 의례로 규범화되기에 이른다. 또한 차는 단순히 수행의 보조 도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행의 도우미이자 수행의 경지를 드러내는 매체로 쓰이게 된다.

다선(茶禪)이라는 용어는 중국 송대 원오극근 선사에 의해 쓰인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선사는 〈벽암록〉을 통해 조주의 끽다거 등을 공안으로 사용하는 등 다선불이(茶禪不二)의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고 한다.

다음으로 선차는 〈선차록〉에 보이는 단어이다. '차사 중 으뜸인 선차'라는 용어에 보이듯 차생활의 으뜸을 '참선'으로 보고 있다.

'명선'의 경우는 추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글에 등장한다. '명선'이라는 글씨의 협서 내용을 보면 '초의스님이 직접 만든 차를 부쳐왔는데 너무 좋아 보답 차 이 글을 쓴다' 정도로 해석된다. 특히 '명선(茗禪)'이라는 표현의 경우 새로운 방식의 선 수행 운동을 펼치는 선차운동의 대가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위의 용어들은 지금도 쓰이는 용어들인데, 최근 등장한 '차명상'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명상운동인 통합명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차명상은 명상의 현대화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명상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사코드〉란 책에서 이성헌은 "추사는 왜 '다선'이란 일반적인 표현 대신 왜 '명선'이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선차' 또는 '다선'이라는 표현 대신 왜 '차명상'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현재 차명상이라는 용어는 차를 활용한 기존의 명상법인 다선, 선차, 명선 등에 보태어 현대적인 명상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직지견성을 위한 방법론에 보태어 매체이론, 인지학, 과학적 명상법, 그리고 심리치료 기법 등이 병합된 현대적 의미를 지닌 새로운 명상 분야인 것이다.

우리는 '차명상' 분야를 통해, MTV전통에 뿌리를 둔 전통적 명상방법론이 다양한 현대적 명상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새로운 통합형 명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합형 명상의 확대를 받아들이고 공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이제는 점검해 볼 때다.



기자칼럼

# 산불 피해지역으로 성지순례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봄은 왔는데 오지 않았다.(春來不似春) 지금의 강원도가 그렇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인근에 거주한 4000여 명이 대피를 했으며, 530ha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총 916곳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불교계의 피해도 있었다. 속초 대표 사찰 보광사는 4월 4일 밤 11시부터 5일 새벽까지 7시간동안 이어진 산불로 인해 사무동 건물 1채와 창고 2채가 전소됐으며, 사찰 주위의 소나무림 30%(2,000그루가량)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보관 중인 문화재급 아미타 괘불도와 근대기에 조성된 연가마도 소실됐다.

화재 직후 매뉴얼에 따라 바로 문화재인 목조지장보살좌상과 현왕도를 신속하게 외부로 옮기고 대형 살수차를 불러 계속 진화작업 펼쳤다. 그나마 주요 전각과 문화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사찰 대중과 소방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정부와 사회각계 그리고 불교계도 화재 직후 피해 지역 돕기에 나섰다. 조계종은 긴급구호대를 급파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신흥사와 함께 구호봉사를 진행 중이다. 신흥사의 경우 피해지역 구호에 집중하기 위해 속초지역 봉축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종단 주요 사찰들도 기금 모금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원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맘때면 상춘객들로 붐빌 동해안에 인파가 평소 1/ 10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최문순 강원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에게 동해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을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절실**
**불교도 순례 등 도움 전해야**

"재난지역에 놀러 가는 것이 혹시나 폐가 될까라는 조심스런 생각은 거두어 달라. 지금 최고의 자원봉사는 관광으로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는 최문순 지사의 절절한 호소를 불교계도 되새겨야 한다.

정부도 이에 맞춰 강원지역 관광활성화를 피해 복원 계획으로 내놨다. 문화재청도 강원 산불 피해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유산 관람을 원하는 관광객이 피해 지역을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강원지역 문화유산 답사코스' 책자를 제작 · 배포한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와 담당자 워크숍, 교육 등 총 27회 가량의 행사를 강원도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무형문화재 공연과 중학생 대상 문화유산 교육도 강원 산불피해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는 건봉사, 신흥사, 낙산사 등 불교의 고찰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불교계도 부처님오신날을 앞뒤로 혹은 봄을 맞아 성지순례를 계획하는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있다면 강원도 동해안으로 갈 것을 종단 차원에서 독려해 봄이 어떨까. 동해안의 정취를 느끼면서 신행도 하며 피해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자리이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社 說

# 백만원력결집은 '불교 중흥' 열쇠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으로 침체기에 빠진 한국불교를 중흥하기 위한 대승보살도 실천운동인 '백만원력결집'이 본격화된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백만원력결집은 불자 개개인이 매일 100원씩, 매월 3000원을 기부해 한국불교 대작불사를 이뤄내자는 보시 캠페인이다. 불제자들은 매일 대승원력보살 발원문을 독송하면서 육바라밀 중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다. 보시문화 확산을 위한 것인 만큼 보시금액도 최소화했다.

백만원력결집은 무엇보다 불 · 법 · 승 삼보를 주제로 한 불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불제자들의 많은 동참이 기대된다. 불(佛)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건립을, 법(法)은 군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더 손쉽게 접하도록 이끄는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을, 승(僧)은 승려 고령화로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승려요양병원 건립을 의미한다.

각 사업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백만원력결집을 추진하는 백년대계본부는 올해 목표액으로 100억 원을 설정했다. 보시금액이 일정 수준 모연 되는대로 3대 불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불제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행 · 전법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식적인 선포식은 4월 17일 열린다. 하지만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3대 불사의 원만 회향을 돕기 위한 성원이 모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스님뿐만 아니라 정 · 재계 유명인사부터 일선 사찰의 신도까지, 백만원력결집은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모든 사부대중이 뜻을 모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 이주민 스님부터 끌어안자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불자들 뿐만 아니라 불교국가에서 온 이주민 불자들도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불심에 한국불교계는 어떻게 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최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대표로 호산 스님을 선임하며 이주민 법당 운영 스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나온 얘기는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매년 체류 보증이 되지 않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귀국 후 다시 비자를 받아 온다는 스님부터, 귀화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추천 해주는 사찰이 없어 무산됐다는 스님까지 다양했다. 조계종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일부 사례를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조계종은 최근 조계종 소속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장학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기서 제외 되는 것이 타국 불교종단 소속 스님들이다. 이주민 법당에서 이들 스님들의 위치는 지대하다. 신행지도부터 생활상담까지 사실상 정신적인 의지처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만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만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 대해 종단이 혜택을 주며 전법 포교를 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이주민 스님들만이라도 종단이 혜택을 준다면 포교전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종단 소속으로 하기 어렵다면 국제전법단 내에 다문화전법단 등을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지금, 이제는 이주민 포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